

열광·환호·탄식 ... 2012 스포츠 10대 뉴스

우리나라가 런던올림픽에서 종합 5위에 오르며 원정 올림픽 사상 최고 성적을 거둔 것이 올해 한국스포츠계 최고의 뉴스로 뽑혔다.
연합뉴스가 광주일보 등 전국 주요 언론사의 스포츠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2012년 스포츠 10대 뉴스'를 선정하는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태극전사들의 선전이 첫손가락에 꼽혔다.
'런던올림픽 종합 5위-원정대회 최고 성적'이라는 항목은 설문에 참여한 50개 언론사(중앙 24개·지방 26개) 중에서 1위 표만 34표를 얻는 등 총 410점을 획득해 10대 뉴스의 1위를 차지했다.

1 런던올림픽 종합 5위 ... 원정대회 최고 성적

2012년 여름은 유난히 무더웠지만 런던에서 들려온 '태극 전사'들의 승전보에 온 국민이 청량감을 느낄 수 있었다.
7월27일 개막한 런던올림픽은 한국에 각별한 의미가 있는 대회였다. 독립 후 처음 출전한 하계올림픽이 바로 1948년 런던 대회였기 때문이다.
'10(금메달)-10(종합순위)'를 목표로 64년 만에 다시 런던을 찾은 한국은 금메달 수(13개)에서는 2008년 베이징 대회와 똑같지만 순위를 7위에서 5위로 끌어올려 역대 원정 하계올림픽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또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동·하계 올림픽 통산 100번째 금메달의 쾌거를 이뤘다.
사격 진중오와 양궁 기보배는 대회 2관왕에 올랐으며, 도마의 양학선은 한국에 첫 올림픽 체조 금메달을 선사했다.



런던올림픽 도마 결선에서 한국 체조 사상 첫 금메달을 딴 양학선 선수.

2 투수 류현진 메이저리그 LA 다저스 입단

'괴물 투수' 류현진(25)이 거액의 몸값을 받고 미국프로야구(MLB) LA 다저스에 입단했다.
역대 포스팅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에 참가한 한국 선수 중 최고액인 2573만737달러 33센트(약 280억원)의 이적료를 받고 협상을 시작한 류현진은 계약 기간 6년에 연봉 총액 3600만달러(약 390억원)를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마무리했다.
이는 포스팅시스템을 통해 메이저리그 진출한 선수 중에 일본인 투수 다쓰유키 유(텍사스 레인저스·6년간 6000만달러), 마쓰자카 다이세(보스턴 레드삭스·6년간 52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연봉에 해당하는 '대형 계약'이다.
1994년 미국에 진출한 박찬호(은퇴)를 시작으로 한국인 선수로는 13번째로 메이저리그 무대에 설 기회를 잡았다. 또 한국프로야구에서 메이저리그로 직행한 첫 번째 선수다.



3 프로야구 700만 관중 돌파

올해 프로야구 정규시즌 532경기에 입장한 총 관중은 715만6157명. 단일 시즌 관중 700만명 돌파는 프로야구 31년 역사상 최초이자 국내 프로스포츠를 통틀어도 처음이다.
1982년 출범한 프로야구는 1995년 540만 관중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후 2000년대 중반까지 연 관중이 200만명대로 하락하는 등 암흑기를 거쳤다. 하지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베이징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며 부활의 발판을 마련했다.



4 박종우 독도 세리머니 파장

한국 축구가 올림픽 사상 첫 메달을 수확하는 기쁨의 순간 박종우(부산 아이파크)의 '독도 세리머니'는 메달 수여 보류라는 파장을 불러왔다. 박종우는 런던올림픽 남자축구 일본과의 3-4위전에서 이긴 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보였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한국과 일본의 외교 갈등이 고조될 때 나온 퍼포먼스였다. IOC는 어떤 정치적인 행위도 금지하는 올림픽 현장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박종우에게 동메달 수여를 보류하고 국제축구연맹(FIFA)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5 올림픽 펜싱 신아람 '멈춘 1초'

2012 런던올림픽에서 신아람(26·계룡시청)은 '멈춰버린 1초' 탓에 하얗게 눈물을 흘렸다. 펜싱 여자 예예 준결승, 독일의 브리타 하이데만과 5-5로 맞선 채 돌입한 연장전에서 신아람은 경기 종료 1초를 남겨두고 세 차례 공격을 막아냈다.
그러나 경기장의 시계는 그대로 '1초'에 머물렀고 신아람은 네 번째 공격을 허용해 지고 말았다. 코치진과 대한체육회(KOC)가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고 신아람은 한 시간 넘게 피스트에 흐로 남아 울었다.



6 프로야구·프로배구 승부조작 파동

2011년 프로축구를 덮친 승부조작의 '검은 손'이 프로야구와 프로배구에도 마수를 뻗었다.
프로배구 KEPCO에서 댄 전직 선수 염순호와 박준범·임시형·김상기·최일규(KEPCO) 등 남자 선수 뿐만 아니라 전민정·전유리(흥국생명) 등 여자 선수까지 전·현직 선수 16명과 브로커 5명이 작당해 승부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프로야구에서도 LG 소속 투수 박현준과 김성현 역시 '검은 돈'을 받고 '첫 이닝 고의 볼넷' 등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영구실격처분을 받았다.

7 '코리아 특급' 박찬호 전격 은퇴

한국인 최초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 진출해 아시아 출신으로는 통산 최다승(124승)을 기록한 박찬호(39)가 마운드에 오르는 모습을 이제 더는 볼 수 없다. '코리아 특급' 박찬호는 한화 소속으로 올 시즌을 마치고 현역 연장과 은퇴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11월29일 구단에 30년간의 선수 생활을 마감하겠다고 밝혔다.
한양대에 재학 중이던 1994년 LA 다저스에 입단해 한국 야구사에 한 획을 그은 박찬호는 미국, 일본, 한국프로야구 통산 2156이닝을 던져 130승113패 2세이브와 평균자책점 4.40의 성적을 남겼다.



8 피겨 여왕 김연아 2년만에 복귀

잡자던 '피겨 여왕'이 다시 은반 위에서 춤추기 시작했다.
12월 8~9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린 2012 NRW트로피 대회는 김연아(22·고려대)의 성공적인 복귀전이었다.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이후 진로를 두고 긴 고민에 빠진 김연아는 7월 빙판 복귀를 선언,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전성기를 지난 나이와 20개월의 긴 공백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기술과 깊어진 연기력으로 개인 통산 네 번째 200점대 기록을 작성하며 사람들을 열광시켰다.



9 박지성·박주영·기성용 이적

유럽 프로축구 리그에서 활약하는 한국인 스타 선수들의 연이은 이적이 화제가 됐다. '연쇄이동'에 표포를 얻 것은 박지성(31·사진)이었다. 박지성은 7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니폼을 벗고 퀸스파크 레인저스(QPR)로 등지를 옮겨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박주영(27)은 지난 8월 벤치만 지키던 아스널을 떠나 1년 임대로 셀타 비고(스페인)로 옮겼다. 스코틀랜드 셀틱에서 뛰던 기성용(23)은 여러 구단의 러브콜을 받은 끝에 8월 스완지시티(잉글랜드)를 선택, 10번째 한국인 프리미어리거가 됐다.



10 리듬체조 손연재 올림픽 최고 성적

2012 런던올림픽에서 메달리스트가 아닌 선수 중 최고의 스타를 꼽으면 단연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18·세종고)다.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개인종합 동메달을 획득한 손연재는 런던에서도 올림픽 개인종합 예선에서 4개 종목(후프·볼·곤봉·리본) 합계 110,300점을 받아 전체 24명 중 6위로 상위 10명이 나서는 결선에 올랐다. 한국 리듬체조 선수가 올림픽 결선에 진출한 것은 손연재가 처음이다. 결선에서도 손연재는 110,475점을 기록, 5위에 자리해 국제무대에 자신의 이름을 당당히 알렸다.



Advertisement for Bukgodang Hanakbang. Features text: '보약, 홍삼은',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90,000원'. Includes an image of a traditional Korean medicinal soup pot and ingredients.